

論 文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에 관한 연구

- 2002년 전후 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대출빈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권 광 희

< 목 차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독서의 정의 및 중요성
 - 2.1.1 독서의 정의
 - 2.1.2 독서의 중요성
 - 2.1.3 독서지도의 의미
- 2.2 대학생과 독서
- 2.3 독서와 대학도서관

3. 2002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간 매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의 분야별 선호도 비교

- 3.1 2002년 이전 매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
- 3.2 2002년 이후 매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

4.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먼저 본 내용의 일부는 서울대학교 대출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된 재학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재학 학부생들의 독서경향을 분석해 효율적인 대학생들의 독서지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발표하였던 본인의 학위논문에 발표되었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벌어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살고 있다.

흔히 이 시대를 탈산업화 시대, 지식산업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주의가 아닌 개성의 존중과 개인의 창의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고력 증진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 그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서는 인류가 쌓아온 정신적 가치를 섭렵함으로써 그 가치의 실체를 수용하는 행위이다. 그 가치는 사고와 창의적 능력 즉 판단을 위한 기본요소이다. 독서의 필요성이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독서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급속한 변모 속에 놓인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다. 대학생의 경우 독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수용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학문 탐구를 본령으로 하는 대학생은 전공학문의 영역은 물론 대학생으로서 기초적 품성함양은 필수적 단계이다. 보다 높은 지적 세계를 지향해야만 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 영역만이 아니라 기초적 교양 형성을 위해 독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공학문의 동일 영역에 있어서 기성의 업적과 연구방법을 아는 것은 대학생활의 전제조건이다. 대학생이 독서를 통해 기초교양과 전공영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는 전자미디어, 인터넷이 대표적 전달체계로 등장한 시대이다. 인쇄미디어가 중심이 된 정보전달체계는 어떤 형태로든 변모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달체계의 변모는 여러 국면에 심각한 영향을 낳고 있다. 인쇄미디어를 통한 인간의 사유 역시 전자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직각적 반응의 형태로 대치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서를 통해 기성의 업적과 연구방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탐구해야하는 대학생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대출시스템에 의한 2002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간 매년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를 비교 분석하여 변화된 독서경향을 알아보고 나아가서는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¹⁾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출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대출시스템의 통계를 이용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 5년간 매년 최다 대출 횟수를 기록한 도서를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분석의 개요로는 첫째,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들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대출통계를 2002년 이전 최다 대출횟수를 기록한 도서들의 선정하여 주제분야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둘째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최다 대출 횟수를 기록한 도서를 2002년 이후 최다 대출횟수를 기록한 도서들을 선정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전후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독서의 정의 및 중요성

1. 독서의 정의

독서에 대한 정의는 ‘문자를 읽거나 문장, 글을 읽는다’는 가벼운 개념에서부터 ‘필자의 기호화된 의미가 독자의 뇌리에 재생되어 다시 형성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독서자료, 독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독자의 생리적·지적 활동이 상호작용 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과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좁은 개념의 독서는 단순히 책을 본다가나 읽는다는 것이다. 넓은 개념의

1) 유준수의, “대학생의 독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大學生活研究,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4호, 1986.

독서는 책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매체와 나아가 문화, 사회 및 자연의 환경과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개인의 전략적 사고과정인 것이다.

독서의 구체적인 과정은 독자가 낱말, 문장, 문단, 글 등을 읽을 때, 그 읽은 내용에 대해 독자의 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복합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동시에 일련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이해되는 때마다 취사선택하여 통합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지속되고, 불분명한 '의미'가 차차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글의 끝부분을 읽을 때 비로소 글 전체의 의미를 훑쓸어 파악하게 된다.

즉 독서는 언어기호의 의미가 글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독자의 뇌리에 자극을 줌으로써, 독서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석, 종합, 정리, 추출하는 사고능력을 통하여 의미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독자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지식, 정보, 연구, 조사, 영감, 오락의 자료원으로서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그 가치를 발휘하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창조적 사고 과정인 것이다.

김병원²⁾은 독서는 글을 매체로 하여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미를 다시 구성해 나가는 인간 두뇌의 복잡한 언어사고 과정이다.

Harris³⁾는 독서는 인쇄된 자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위이다. 독서는 인쇄된 필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상을 읽을 자료, 독자의 지식, 독서력 등 세가지 기초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독자의 마음속에 깊이 재구성하는 과정, 즉 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였다.

2. 독서의 중요성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기 하나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어 생활은 틀에 박힌 생활이며 좁은 교제의 범주 안에서 몇 사람들의 친구들과 이야기 할 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거의 신변의 사소한 이야기들 뿐이나 독서를 통하여 넓은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나 미경험의 세계를 찾는 길잡이가 되어 폭 넓고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삶에 자신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큰 힘을 가지게 된다. 학생은 학생

2) 김병원, 독서론, 서울:배영사, 1978, p. 7.

3) Harris, A. J., How to increase reading ability, New York:Longmans & Green, 1956, p. 153.

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또한 연구자들도 한 권의 교과서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더 넓은 시야를 확충해가야 한다.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서가 아니면 시간적 경제적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매일 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독서를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교양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외에도 정서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사고력을 길러 창의성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하여 얻어지고 독서의 중요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창조적 사고”란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이며 문제를 의식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그 문제에 대결하는 어떤 결정이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적 사고란 비판적인 생각 없이 수용하는 기계적인 사고와는 달리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당면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사고가 모든 지적인 능력을 두루 망라한 것으로 고도의 사고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독서는 좋은 사고를 요구하며 성공적인 독서에는 반드시 좋은 사고가 수반되며 좋은 사고, 즉 창조적 사고를 떠나서 좋은 독서는 기대할 수 없다.

3. 독서지도의 의의

독서지도란 넓은 뜻으로는 독서에 의한 인간형성이라는 의미로 독서교육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좁은 뜻으로는 독서교육의 방법론과 그 실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형성을 위한 독서하는 기술, 독서위생, 독서후의 지도를 말한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개념을 여러 각도의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듯이 독서 지도의 의의도 역시 여러 각도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즉 독서지도를 일반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각 개인이 자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도서 자료를 매개체로 해서 자기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사회적으로 적응된 독서, 인격의 형성을 계획적으로 원조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독서에 의한 생활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독서로 건전하고 충실히 하여 현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독서력과 독서에 의한 인간 형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지도라고 하겠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육인구의 급증과 가속적인 기술 개발의 촉진으로 인하여 상승곡선적인 급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 복잡성을 처리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날로 고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사회에 낙후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지식의 소유가 더욱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한 지식을 독서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독서에서 배우고,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빠른 폭 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활과 유리화된 관념상태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생활과 일치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阪本一郎은 독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생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 생산적 생활 활동

개인이 생산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역량 부족으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

- ① 행동의 안내 → 처음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안내서, 입문서 등
- ② 정보의 제공 → 자신의 경험으로는 막다른 길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각종 참고 도서 등
- ③ 전문적 연구 →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당면하여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전문서적 등

(2) 사회적 생활 활동

개인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안정 부족으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

- ① 환경의 이해 → 자기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신문, 잡지 등
- ② 적응의 기술 →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기술을 익히하고자 할 때, 에티켓, 법률 등
- ③ 인격의 안정된 인간 관계의 형성이나 사회 행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할 때, 역사서, 지리서, 수양서 등

(3) 오락적 생활 활동

개인의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가운데 효과의 부족으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

- ① 여가의 선용 → 생산적 활동 중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가를 뜻 있게 보내고자 할 때, 건전한 오락서 등
- ② 취미의 향상 → 취미 활동의 내용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취미서 등
- ③ 오락의 예능화 → 자기의 재질에 대한 보다 높은 예능적 가치를 창조하고자 할 때, 예술서 등 3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독서의 목적이란 바로 첫째, 이러한 생활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둘째, 그러한 욕구 만족을 위하여 여하한 환경과 상황아래서도 자신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① 교양을 위하여 ② 연구를 위하여 ③ 생활정보와 수단을 얻기 위하여 ④ 오락을 위하여 ⑤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⑥ 자유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 독서는 절대적인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⁴⁾

제2절 대학생과 독서

정보화시대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시대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정보가 생겨 어떠한 사회가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금의 전공이 마음에 드는 일도 극히 드물다. 자연과학을 전공하고서도 시인이 되고, 인문과학을 전공하고서도 발명가가 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교양교육이며 기초교육이다. 전공이외의 폭 넓은 교양을 쌓아 놓지 않으면 진로를 바꾸기 어려운데, 사회는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전문가시대는 특정의 좁은 분야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각박한 삶을 강요한다.

이에 대응하는 대학생활은 전공지식은 뒤지더라도 폭넓은 교양을 쌓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며, 많은 독서로 독서력과 비판력을 키우는 것이다.

자신의 안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알고서도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목을 넓히고 자신감을 갖고 여유를 가지며, 많은 화제 거리를 갖는 것이다. 내면적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승은 살아 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총장이 신입생에게 “여러분은 여기 계신 소수의 교수님만 만나지 말고, 도서관에 있는 일천만의 스승과 만남시다”

4) 강복환, “독서지도방법”, 學生指導研究 第6輯, 공주교육대학 학생지도연구소, 1987.

라고 했다는 것과 같이 옛 스승을 그의 저서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부하는 방법, 외국어 독서력, 교양도서 독서 등으로서 이것이 바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제 지식은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책 속에 있다. 어떻게 취사선택하며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알고, 그것을 읽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전공을 바꾸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은 심리적 자유에서 온다고 한다. 그 심리적 자유(Psychological freedom)는 자신감과 자존심에서 오며, 자신감은 적절한 정보를 구비하는데 있다고 한다. 모르면 불안하고 열등감이 생긴다. 떳떳하고 당당한 자신을 만들기 위하여 대학생활을 효과 있게 보내야 한다.

그것은 도서관을 통한, 자기교육(Self education)이다.⁵⁾

그것은 독서를 통한, 자기교육(Self education)이다.

제3절 독서와 대학도서관

현대와 같은 경쟁이 심한 사회일수록 도서관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지식과 도움은 더욱 더 커진다. 우리는 교육,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등의 시설 분야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 뿐 아니라 “도서관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가장 우수한 지성인, 선지자들의 두뇌와 총화를 축적한 저장고”⁶⁾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인간의 정신 자원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즉 풍부한 지력, 숙련된 시굴,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의 계발은 도서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귀중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읽기 쉬운 곳에 있지 않으면 거의 읽히지 않는다. 독서하려는 의욕이 있어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도서관 이용법에 익숙지 않아서, 또는 독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독서가 이뤄지지 않는 수가 많다.⁷⁾ 도서관은 독서 자료들을 선택하여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므로 독서 인구 개발의 기본 요소가 된다. 한편 독서는 그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그 결과가 좌

5) 중앙대학교 도서관 편, “大學生活과 圖書館”, 중앙대학교, 1993.

6) 이희승, “인생의 지혜로서의 독서,” 「대학생과 독서」, 서울:세계사, 1968, p. 18.

7) 김경일, “범국민 독서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방안,”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세미나 보고서」, 1970, p. 18.

우될 뿐만 아니라, 독서하려는 욕구 또는 동기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독서 인구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풍부한 독서 자료들을 제공해 주며, 의욕적인 독서 활동이 전개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또한 무한한 지식의 세계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올바른 도서관 이용 방법과 함께 독서방법, 기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독서 활동을 고무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독서 교육 기능의 구심체로서 모든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108조에 “대학교육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대학도서관은 바로 그와 같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속기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핵심적 교육기관이요 학술정보센터인 것이다.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 부과된 사명인 학술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필요한 도서 및 그 외의 자료나 정보들을 수집하며, 교육과 연구에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그것들을 유의적, 자율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교육기관이다.” 즉 대학의 교수기능과 연구조사 기능, 학생들의 수업, 교양 및 학구적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 보존하여 이를 널리 활용하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대학교육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시키고,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인 효과적 교수기능, 창조적 연구기능, 훌륭한 봉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적, 정보적, 학술적, 교양적 자료를 수집, 조직, 축적, 검색, 제공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의의와 중요성이 존재한다.

제3장 2002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간 매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의 분야별 선호도 비교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2006년도 현재 전체 장서량은 2,736,733책이다. 이들 도서 중 대출 가능한 중앙도서관 단행본 도서의 장서량은 730,000여 책이다.⁸⁾ 이들 730,000여 장서 중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 5년간 중앙도서관 전체 대출

8) “2006년 12월 통계임.”

이용 책수는 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2년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49만여 책수였는데, 2002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중앙도서관 전체 대출이용 책수를 분석해 본 결과 매년 약 60만여 책수로 약13% 상승한 변화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학부 재학생들의 대출이용 평균 책수는 매년 약33만여 책수로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5년간 증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시스템을 통한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들의 대출 책수는 매년 전체 대출책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서울대학교 재학 학부생들이 교양도서, 혹은 전공도서에 대한 독서율이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1절 2002년 이전 매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들의 독서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2년 전후 5년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출시스템의 대출통계를 이용하여 학부 재학생들이 최다 대출한 도서를 100선 선정하였다. 또한 주제별 대출현황을 통하여 학부 재학생들의 분야별 대출현황을 알아보았다. 주제별 대출현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DDC 분류에 따른 11개 분야인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로 분류된 것을 5개 분야로 즉 첫째분야로는 언어, 시, 소설을 포함하는 문학도서로, 둘째분야로는 사회과학, 기술과학, 순수과학, 역사를 포함하는 교양도서로, 셋째분야로는 총류, 철학, 종교를 포함하는 실용·취미도서로 넷째는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아래 <표 1>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시스템을 통하여 2002년 이전 5년간 재학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 리스트이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분야별 선호를 보면 문학분야 및 사회과학, 기술과학, 순수과학, 역사를 포함하는 교양도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무협지 및 SF소설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대학생들의 독서교육 및 독서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었다.

<표 1> 최다 대출 도서 리스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대출횟수
토지:박경리 대하 소설	박경리	솔	1993	976
아리랑:조정래 대하소설	조정래	해냄	1994	931
(SF大望)은하영웅전설	Tanaka, Yoshiki	을지서적	1993	749
(小説)英雄門	Chin, Yung	고려원	1987	730
바람의 마도사:김근우 장편소설	김근우	무당미디어	1997	643
마계마인전	Mizuno, Ryo	들녘	1995	538
람세스:크리스티앙 자크 장편소설	Jacq, Christian	문학동네	1997	498
태백산맥:조정래 대하소설	조정래	해냄	1995	495
三國志	Lo, Kuan-chung	대산	1997	490
이문열 세계명작산책	이문열	살림	1995	483
로마인 이야기	Shiono, Nanami	한길사	1995	470
아루스란 戰記	Tanaka, Yoshiki	을지서적	1994	470
(小説)明皇城	Liang, Yu-sheng	고려원	1992	367
(만화)십팔사략	고우영	동아	1995	362
미야모도무사시	Yoshikawa, Eiji	고려문화사	1995	357
SF 수호지	Kurimoto, Kaoru	산호	1992	351
퇴마록	이우혁	들녘	1994	343
인물과 사상	강준만	개마고원	1997	342
三國志	이문열	민음사	1988	341
태엽감는 새	Murakami, Haruki	문학사상사	1994	313
드래곤 라자:이영도장편소설	이영도	황금가지	1998	719
왜란 종결자	이우혁	들녘	1998	540
용의신전:김예리판타지장편소설	김예리	자음과모음	1998	436
변경:이문열장편소설	이문열	문학고지성	1998	432
탐그루:김상현판타지장편소설	김상현	영상	1998	428
한국사	강만길	한길사	1994	365
강좌 중국사	서울대학교	지식산업사	1989	309
도쿠가와 이에야스	Yamaoka, So hachi	솔	2000	497
도스토예프스끼 전집	Dostoyevsky, Fyodor	열린책들	2000	234
풀라리스 랩소디:이영도장편소설	이영도	황금가지	2000	326
서양 미술사	Gombrich, E.H.	열화당	1995	324
건륭황제:이월하역사소설	Eryuehe	출판시대	2001	260
옹정황제:이월하역사소설	Eryuehe	출판시대	2001	260
(새)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김영사	1998	218

제2절 2002년 이후 매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

<표 2> 최다 대출 도서 리스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대출횟수
한국사특강	한영우	서울대학교	2004	192
양자역학	송희성	교학연구소	1997	151
(표준)일반화학실험	대한 화학회	천문각	1999	147
태엽감는 새	Murakami, Haruki	문학사상사	1994	142
장미의 이름	Eco, Umberto	열린책들	1993	140
문화인류학개론	한상복	서울대학교	1994	538
좀머씨 이야기	Suskind, Patrick	열린책들	1992	128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v.27	김인숙	문학사상사	2003	126
미학입문	Dickie, George	서광사	1981	122
토지	박경리	솔	1993	120
구별짓기	Bourdieu, Pierre	새물결	1995	111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문예마당	1994	111
경제학 산책	홍기현	김영사	2003	109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연구	고우영	동아	1995	362
아리랑	조정래	해냄	1994	107
식물생리학	Salisbury, Frank B	아카데미	1998	104
서양미술사	Janson, H.W.	미진사	2001	101
그리스 비극	조우현	현암사	1999	100
변신	Kafka, Franz	민음사	2005	99
토니오 크뢰거;트리스탄...	Mann, Thomas	민음사	2005	98
TV피플	Murakami, Haruki	삼문	2000	98
백년동안의 고독	Garcia Marquez, Gabriel	문학사상사	1999	96
픽션들	Borges, Jorge Luis	민음사	2006	95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백낙청	창작과 비평사	1981	95
우리공꿍이야기	홍순민	청년사	2004	92
(간추린)중국 미술의 역사	박은화	시공사	1998	91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Hobsbawm, E.J.	창작과 비평사	2005	91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Murakami, Ryo	예하	1995	89
중국미술사	Sulivan, Michael	예경	2005	86
상실의 시대	Murakami, Haruki	문학사상사	1995	86
스푸트니크의 연인	Murakami, Haruki	자유문학사	1999	85
람세스	Jacq, Christian	문학동네	2006	82
낭만적 사랑과 사회	정이현	문학과 지성사	2003	81
이기적 유전자	Dawkins, Richard	윌유문화사	2001	80

2002년 이후 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분야별 선호도를 분석해 본 결과 2002년에는 문학도서가 33%, 교양도서가 38%, 실용·취미도서가 16%, 기타가 13%였으며, 2003년에는 문학도서가 27%, 교양도서가 38%, 실용·취미도서가 20%, 기타가 15%였으며, 2004년에는 문학도서가 35%, 교양도서가 40%, 실용·취미도서가 16%, 기타가 9%였다.

2005년에는 문학도서가 34%, 교양도서가 39%, 실용·취미도서가 25%, 기타가 2%였으며, 또 2006년에는 문학도서가 35%, 교양도서가 39%, 실용·취미도서가 24%, 기타가 2%였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이후 5년간 매년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독서경향을 알아본 결과 가장 대출이 많이 된 주제분야는 문학분야 도서 및 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

2002년 이전 5년간 분야별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당시는 문학도서 분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도서 대여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협지소설과 만화의 지속적인 증가동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서울대학교라는 가장 우수한 대학생 집단으로서 변혁의 주체 세력의 구실을 수행하고 앞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대학생집단으로서 볼 때는 올바른 독서지도, 독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5년간 분야별 선호도를 다시 조사 분석해 본 결과 교양도서, 문학도서 및 실용·취미도서 분야가 전체 주제 분야의 주류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도서 선정 지침에 무협지 및 SF소설에 대한 구입을 제한 한것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우수 대학생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독서경향이 문학분야 및 사회과학, 기술과학, 역사의 교양도서로 독서영역이 넓어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가지 두드러지는 경향은 물론 대학교육 수준에 적절한 사과의 소재를 담고 있는 교양도서의 점차적인 증가는 환영할 만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재학 학부생들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4장 결론

이와 같이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본 연구는 2002년 전후 5년간 학부생들의 최다 대출된 도서를 매년 100선을 선정하여 그 도서들의 주제를 분석하여 학부생들의 분야별 선호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대학생들의 독서지도 방향과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대학생에게 독서가 단순한 취미 문제일 수는 없다. 급변하는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의사소통의 방법 및 도구가 다양해 졌지만,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 주된 방법이 독서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넓고 풍부한 생활경험을 흡수하고 확장 할 수 있으며, 폭넓고 유능한 인간으로서 자신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아발견과 자아형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대학 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격 도야의 도장이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육인구의 급증과 가속적인 기술개발의 촉진으로 인하여 보다 폭 넓은 지식의 소유가 더욱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독서란 바로 간접적인 생활경험의 폭을 넓혀 주고, 생활과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활과 유리화된 관념상태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생활과 일치화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터넷에 참여하는 인구가 세계인구의 81%를 육박하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거대한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생산·보급 되는데, 이러한 넘쳐나는 지식정보를 지혜롭게 취사선택하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 키워질 수 있고 할 수 있다. 독서는 문화, 정보, 지식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올바른 독서문화의 자리매김 없이 지식기반 사회는 구축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은 독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병원, “독서론”, 서울:배영사, 1978, p. 7.
- 김용철외,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대구:태일사, 2002.
- 남태우 역,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도서관협회, 2000.
- 박정길, 圖書館·文獻利用法, 부산:경성대학교 출판부, 1995.
- 안춘근, 한국출판 문화론, 서울:범우사, 1981.
- 오인환 옮김, 독서의 생활화, 서울:구미무역, 1982.
- 윤희윤, 장서관리론, 대구:태일사, 1999.
- 이기성, e-book과 한글폰트, 서울:동일출판사, 2000.
- 이기성, “전자출판과 디스크책에 관한 연구”, 출판학연구, 서울:범우사, 1993.
- A. J. Harris, How to increase reading ability, New York:Longmans & Green, 1956, p. 153.
- 한국출판연구소, “국민 독서실태 조사”, 1998-2002.
- Strang, Ruth McCallough, Constance, M. and Traxler Arthur E., Problems in the improvement of reading, New York:McGraw-Hill, 1955, p. 287.

《학위논문》

- 김귀영, “경영학과 대학원생들의 정보이용 및 도서관이용 행태”,
경북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정보학과 정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83.
- 김미향, “연구중심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한 대출통계 분석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보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승환, “독서지도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습관형성에 대한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
로 한 효과적인 독서습관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
학위논문, 1972.

《학술논문》

- 강복환,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법”, 학생지도연구, 공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7집, 1994.
- 김성배, “대학생의 독서 경향과 그 분석 지도에 대하여”, 학생지도연구, 동국대학

교 학생지도연구소, 제2집, 1976.

김영석, “대학생의 독서경향 분석”, 문헌정보학보,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연구회, 제2집, 1986.

유준수의, “대학생의 독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제4호, 1986.